

일그린진 한국 교회의 얼굴

박영돈 저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책은 한국 교회가 처한 난맥상을 진단·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필자는 본서 내용을 요약하기보다 핵심을 분석하고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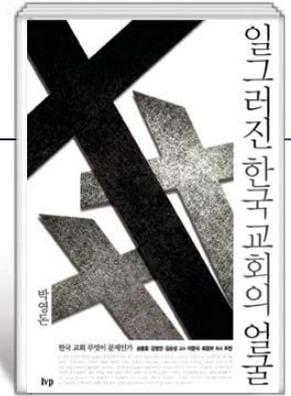
교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다.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일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런 두려움을 잘 아는 저자는 경건한 용기를 내어 그 일을 자원하고 나섰다.

저자가 보기에 한국 교회는 일종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다. 지상에 교회가 서고 전진해나가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성원으로는 우선 신학교가 있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 신학교수에게 교육을 받은 후에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있고,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의 전진에 가담하는 회중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연쇄고리를 형성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진단이다.

신학교는 진실된 목회자를 양성하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신학교의 난립, 목사 후보생의 초과 배출, 목사직의 남발이 한국 교회 타락의 핵심에 놓여 있는 문제다.”(123면) 하지만 신학교의 문제는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수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교회의 기득권지들과 기존 체제에 너무 잘 순응하고 보신주의 벽 안에 숨어 자신을 지키는 데 약삭빠르게 처신하기만 하고... 학자라는 자들은 세련된 말과 이론으로 의식 있고 개혁적인 것처럼... 예언자 흉내는 몇들어지게 내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부조리에 잘 길들여진 양처럼 순응해 버리고...”(123면) 신학교는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고, 교수들은 자기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목회자들을 양성한다. 윌터스토프의 말을 빌면, “외식의 영속화”에 기여하는 셈이다. 이런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목회자는 기독교란 ‘외식하는 종교’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 문을 나설 것이다.

모순된 교육을 받고 목회 현장에 서는 목사들은 대형 교회를 지향함으로써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저자는 대형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복음주의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몇몇 목회자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한다. 저자는 대형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론이라고 본다. 대형 교회는 이미 내적인 모순을 안고 있어서 교회의 바람직한 본질을 형성하고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규모가 적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되새기게 된다. 성령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크기는 교회의 본질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결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18면) 결국 대형 교회에서 파생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교회의 크기에 따른 내적 결함 때문인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첫째, 교회를 적당한 크기로 분할해야 한다. 저자는 교회의 적절한 인원을 최대 300명으로 본다. 둘째, 대형 교회에서 잘 훈련된 신자들이 소형 교회로 가서 봉사하여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서평자의 입장에서 둘째 대안은 다소 당황스럽다. 대형 교회가 선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저자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교회론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훌륭한 신자를 양성해서 소형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소형 교회는 나은가? 그렇지도 않다. 소형 교회의 목회자도 결국 동일하게 세속적인 신학교와 교단을 통해 목사가 되었을 뿐이다. 힘이 없어서 소형 교회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마음 속으로는 대형 교회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는 규모만 작다 뿐이지 그 정신은 대형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34면). 소형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 방법론을



박영돈 저 | IVP

저자: 박영돈 연세대학교, 미국 풀러신학교, 칼빈신학대학원, 예일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수학. 현 고려신학대학원 교의학 교수.

추천자: 손봉호, 강영민, 김순성, 이문식, 황종부

다루는 세미나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소형 교회의 목회자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보다 불리한 점이 있다. 대형 교회는 소소한 개인의 사정을 다 같이 공유하기 어려우므로 서로간에 과도한 긴장을 피할 수 있고, 대형화가 가지는 비인격적인 특성 때문에 목사의 인격적 흠도 감춰질 수 있다. 반면 소형 교회는 모든 것이 노출되므로 작은 공동체의 이점이 되어야 할 인격적 친밀감이 도리어 약점으로 작용한다(34-35면). 교회와 관련하여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환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여기저기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소수의 목회자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소형 교회 목회자들은 설교의 능력과 인격을 겸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형 교회는 목사의 진정한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장이 된다. 대형 교회를 꾸꾸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도 없이 겸손하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교회 문제의 중심에는 목사가 있다. 또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교단이 있다. 그러면 평신도인 회중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교인들이 대형 교회로 꾸역꾸역 모여들지 않았다면 어찌 대형화가 이루어졌겠는가. 사실 대형화의 주역들 중 하나가 교인들이다. 대형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뿐 아니라 그 명분과 의의까지 제공한 이들이 바로 교인들이다.”(153면) 결국 세속적인 성공을 간절히 꿈꾸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마음이 맞아떨어진 결과물이 대형 교회라는 것이다.

신학교, 목사, 회중의 삼박자가 타락함으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한국 교회는 이제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저자의 해법은 원론적이지만 사실 그 외에는 별로 뾰족한 해답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한 예배와 바른 설교의 회복이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목회의 성공이나 교회의 대형화와 같은 속된 욕망이 다 없어져야 한다. 신학교 교수의 문제이든, 목사의 문제이든, 교인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다. 특별히 영광과 권능과 위엄에 대한 무지가 있는데, 이론적인 무지만이 아니라 경험적인 무지이기도 하다. 경험적인 무지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을 꿀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경건한 말로 거룩한 외형을 아무리 꾸며도 마음속에 숨은 세속적 욕망이 그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맞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맞보아 알 수 있을까? 저자는 말씀과 성령이 해법이라고 설파한다. 영광의 경험은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영광의 경험을 위해서는 그 경험을 언어로 전달해 주는 성경 교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성령의 조명과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때에 비로소 말씀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인 경험이 된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된 후에는 신학교, 목사, 회중이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한국 교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첫째로, 교회와 신학교는 목회자 선발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 후보생을 뽑아서 신학교로 보낼 때에 소명의 문제를 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소명 받은 목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 소명에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고, 모든 주관적인 판단에는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성도가 자기소명에 대해 주관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도 목회자의 자질과 능력이 없다면, 교회는 그 성도에게 냉철하게 조언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부르심의 증거가 분명한 사람을 뽑아서 신학교로 보내야 한다. 신학교는 그를 위탁 받아서 목회자가 되기에 필요한 지적 내용을 채워주고 소양을 키워주어야 한다.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교 교수들이 먼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목사에게 영광의 체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목사는 실제로 이 경험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간구하여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세속적인 욕망을 끊고 참된 목회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가장 먼저 그의 설교에서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이 변화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와 같이 설교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므로 저자가 한국 교회의 설교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을 비판해서 많은 이목을 끌었던 정용섭 목사의 책들을 분석한다. 그의 책은 성공한 한국의 목사들, 설교를 잘 한다고 알려진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들을 조명하고 약점들을 여지없이 비판했다. 저자는 그의 비판에 상당부분을 공감하면서 설교의 난맥상을 지적한다. 그러나 정용섭 목사 또한 신학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설교에 대한 지적들 가운데 바른 측면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어도 잘못된 신학적 전제들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 작업을 저자는 심혈을 기울여 수행했다.

“
신학교, 목사, 회중의 삼박자가 타락함으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한국 교회는 이제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신자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삶의 모든 곳에 적용되어야 한다. 특별히 성도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사명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주일과 평일에 사는 모습이 판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일예배 시간의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에도 역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주일과 평일의 생활이 다를 수 없다. 물론 주일과 평일에 하는 일과 접촉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의미이므로,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신학교와 목사와 회중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까지 제시하는 책이 여기 있다. 목회자들이 이 책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영철 총신대에서 신약학(Ph.D.)을 수학과 현재 성의교회 목사로 설교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중생과 윤리》, 《다시 겸손을 말하다》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 다수가 있다.